



2023 임팩트그라운드

미래비전 계획서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들과
여러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6월 출범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혁신조직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회문제를 풀어내고,
스케일업/스케일아웃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험과 아이디어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본 자료는 2023 임팩트그라운드의 지원을 받는 사회혁신조직의 미래비전계획서입니다.
사회공익을 위해, 본 자료를 공유하며, 영리목적의 사용이나 자료의 편집은 불가합니다.

"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 사업 계획서

■ 제1장 조직소개

● 조직개요

대표자 및 이사회 명단			
이사장 : 박동호			
이사 : 김정아, 김철준, 박래군, 이재광, 최현모, 한상희			
설립년월일	2004년 9월21일	상근직원 수	10명
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403-1 2층(신사동, 복지빌딩)		
법인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비영리 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 비영리 임의단체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		
홈페이지	http://hrfund.or.kr	모 법인명	-
공익법인	Y (세법상 공익법인)	주무관청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의 설립목적			
인권재단 사람은 인권에 관한 연구와 교육, 실천하는 개인 및 단체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인권을 향상시키고 국제인권교류를 촉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조직의 수익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설립 후, 누적기부금 총액 (~2022) : 27,651

- 최근 3년간 수익비용 내역 :

	2020년(연말)	2021년(연말)	2022년(연말)
수익 총계	2,317	2,379	2,573
재단 지원금 총액			500
비용 총계	2,118	2,571	2,317

● 주요 사업(3개 이내)

사업명	사업 내용 (한 문장으로 기술)
인권활동 지원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인권 활동을 지원하고, 인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합니다.
인권활동가 지원	지속 가능한 인권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권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마음 돌봄, 쉼과 재충전 등을 지원합니다.
인권감수성 향상	우리 사회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인권 콘텐츠를 생산하고, 확산합니다.

● 키워드 / 조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3개 작성해 주세요.

Ex. #환경 #IT #기술 #사회복지 #알권리 #성소수자 #인권 #장애인...

#인권기반 #지원과 성장 #사회적소수자 #버팀목

■ 제2장 문제정의와 문제해결 프레임워크

※ 제2장은 전년도에 작성하신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수정 가능)

● [문제정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필요성과 중요성을 중심으로 기술 (왜 문제이고 누가 이 문제에 대해 영향을 받는지 설명)

■ 인권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들

(1) 왜 인권운동이 지속가능 해야 하는가?

- 한국 사회에서 인권은 제도적으로도, ESG를 중시하는 기업과 민간 영역에서도, 공식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규범이 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규범이 개인의 삶과 공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보다는, 추상적이고 선언적 가치의 차원에 머무를 때만 지지받고 있음.
- 반면 차별과 혐오는 물리적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는 중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메시지들은 포털과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퍼져 나가고 있으며, 이는 실제 성소수자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난민과 이주민을 '범죄자'로 묘사하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이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외면하게 하도록 작용함. 심지어 재난참사 피해자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에게도 향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차별과 혐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는 선언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제도 바깥의 사람들인 난민, 이주민, 성소수자, 홈리스, 장애인, HIV 감염인 등을 권리의 주체로 성장시키는 인권운동의 역할이 절실함.
- 인권운동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광장과 언론에 등장시키며 차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왔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민 80% 이상의 지지를 받기까지 14년의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였음.
- 코로나19 이후 K-방역에 가려진 인권 침해 문제를 드러내고 방역 정책의 변화(이태원 집단감염 이후 익명검사 도입, 이주민 전수조사 행정명령 취소 등)를 이끌어 낸 것은, 사회가 위기에 처할수록 인권운동이 더 활성화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음.
- 인권운동이 지속되지 못하면 차별과 혐오에 대항하는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인권문제에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 문제 해결로 나아갈 수 없음. 그 영향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시작으로, 시민 모두에게 전이될 것임.

(2) 인권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3가지 문제

1) 인권활동가로 일하기 어려운 환경

- 인권재단 사람은 2019년 <지속 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 조사>¹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위기 요인들을 확인함.

위기 요인	세부 설명
낮은 활동비, 고된 노동, 휴식 없는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이 부족하고, 인권단체 평균 2-3명이 근무하다 보니 모금캠페인을 진행할 여유가 없음. (단체 평균 후원금 334만 원, 상근활동가 평균 급여 182만 원) ● 긴급한 인권 침해 현안에 대응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음. ● 사회적 약자, 소수자 곁에서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지만, 활동가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음.
개인의 희생과 헌신에 의존	
활동가를 위한 사회안전망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운동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 공적영역에서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 부재함.
성장과 네트워크 기회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단체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한 단체의 노력만으로 활동가의 전문성과 역량을 쌓아가기 어려운 조건임

- 앞으로의 사회 변화를 주도할 세대는 10-20대 디지털 세대이지만, 인권운동 영역은 이들이 변화의 핵심적인 주체로 서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인권재단 사람은 <인권운동 성장 캠프>을 가동하여 단체 성장에 필요한 교육,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협업과 네트워크가 가능한 공간 및 인프라를 제공할 것임.

¹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 조사』 (2019). <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가 공동으로 인권운동더하기 소속단체, 인권재단사람 재정발전소 회원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96개 인권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기본적인 조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2) 새로운 인권 이슈에 대응하지 못함

- 기후위기와 인권, 젠더와 인권, 돌봄과 인권, 감염병과 인권, 시설사회와 인권, 가족구성권과 인권, 디지털 기술과 인권 등 코로나19 등을 경험하며 새롭게 등장한 인권 이슈들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음.
- 최근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재난참사 역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지만, 재난참사 희생자, 생존자들의 각자도생만 있을 뿐 이들을 조력하고,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함께 목소리 내어주는 이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인권활동가로 일하기 어려운 환경은 새로운 인권 이슈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문제로 이어짐. 대다수 인권단체는 문제해결에 적절한 규모와 조직적 전략을 갖추지 못한 채 2~3인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운동의 방식과 조직문화 역시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1990~2000년대 방식에 머물러 있음.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권 현안에 쫓기면서 새로운 의제에 대응하는데 역량과 자원을 쏟을 수 없는 현실임.
- 활동가 개인이 인플루언서가 되어 다양한 의제에 개입해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인권운동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인권재단 사람은 <'더 나은' 캠프>를 운영하며** 새로운 인권 이슈를 발굴하고 사업비 지원과 기획을 함께 하며 그동안 상상만 했던 활동을 시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장을 도모할 것임.

3)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권의 언어 부재

-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에 우리 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인권 감수성이 반드시 향상되어야만 함.
- 그러나 인권운동은 정부나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함. 인권운동의 언어는 주로 성명서, 보도자료, 제안서, 보고서 등으로 표현되다보니, 시민들에게 친숙한 언어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 전통적인 언론 매체 이용도와 신뢰도가 하락하고, 시민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플랫폼은 매우 다양해졌음. 다양한 플랫폼 안에서 혐오는 확산되는 반면, 인권을 주제로 한 콘텐츠는 매우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인권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인권의 언어 개발이 필요하며, 빠르게 확산되는 혐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존엄, 권리, 자유, 평등의 가치를 지켜내는 인권 콘텐츠가 양적으로 많아져야 함.
- **인권재단 사람은 <인권 전문 채널>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관심사, 데이터에 기반한 인권 이슈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질적 양적 인권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축할 것임.

■ 인권재단 사람은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꿈꿉니다.

- 인권활동가들이 제도 바깥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과 함께하며, 이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인권운동이 지속되지 못한다면, 인권의 자리는 더욱 협소해질 것이고 연대와 공감, 다양성의 가치가 아니라 획일화되고, 정상성이 강조된 사회 분위기가 이어질 것임.
-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 이슈가 삶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흩어질 수 있음.
- 디지털 환경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혐오의 메시지는 비정상적으로 취급받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고, 사회적 약자의 아픔은 조롱과 비난거리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항하는 힘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 [프레임워크] 우리 조직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문제해결 모델)

프레임워크 소개 : 타겟 및 접근 방법 등

1) 인권활동(가) 욕구에 기반한 지원

- 당사자의 경험과 의견에 근거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을 위한 과제와 인권재단 사람의 역할을 찾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 2015년, 2019년 2회에 걸쳐 「지속 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 조사」를 진행하여 다음의 과제를 도출, 현장의 필요에 맞춤형 지원활동으로 재정비함.

NO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해 인권재단 사람이 하고 있는 지원
1	인권운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 작은 단체, 지역단체, 비상근 상임활동가를 위한 지원 -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지원	인권활동가 마음돌봄 지원 인권활동가 쉼과 재충전 지원 지역단체 소속 활동가 여비 지원
2	인권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연차 인권활동가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전문성 확보, 네트워크 촉진 (2020-2021)
3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살피고, 조직문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
4	인권활동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확대되어야 한다.	인권활동가 추석선물 나눔 공익활동가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지원

2) 공간을 통한 인권운동의 생태계 조성

- 인권단체들이 상시 모여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고, 심지어 대관을 거부당한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인권재단 사람은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의 필요성을 꾸준히 이야기해 왔음. 2010년부터 약 3년간 인권센터 건립을 위한 풀뿌리 시민 모금을 진행하여, 국내 첫 민간 독립 인권센터를 운영함.
- 2013년 4월 마포구 성산동에 민간 독립 인권센터 '인권중심 사람'을 개관한 뒤, 이후 약 8년 동안 2,070건의 인권행사를 지원하고, 매년 1만 명 이상 이곳을 방문하였으나, 규모의 한계로 인권 활동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촉진할 수 있는 공간 지원은 하지 못함. 재단은 은평구 신사동에 이전보다 규모가 큰 인권운동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구축을 준비하고 있음.

기존 프레임워크와의 차별점(혁신점)

1) 현장과 가장 가깝게, 지원을 통한 사회 변화

- 인권재단 사람은 인권운동 현장과 가장 가까운 비영리재단으로서 활동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 어디인지 신속히 찾고 있음. <인권단체 재정 안정화 기금지원>을 통해 전국 45개의 인권단체와 상시 연결되어 있고, 수시 또는 정기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약 30여 개의 인권단체 및 300여 명의 인권활동가와도 함께하고 있음.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장애인, 홀리스, 청소년, HIV감염인 등 대다수 사회적 약자·소수자 단체는 물론, 인권교육/인권문화/지역인권 단체와도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음.
- 매년 인권 현장의 의견과 필요가 반영된 모금과 지원을 하고 있음. 2021년에도 농촌 이주노동자를 위한 의약품 키트 지원 (지구인의 정류장과 소통), 코로나19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해결을 위한 긴급 지원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와 소통),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 지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소통) 등을 진행하였음.
-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함.

2) 변화의 구심점, 인권활동가에 초점을 맞춘 지원

- 우리 사회 기부문화는 시혜적 시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인권활동가를 위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임.
- 열악한 인권운동 환경과 부족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인해 활동가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인권재단 사람은 매년 쉼과 재충전 지원, 마음돌봄 지원(마음건강 검진 기회 제공, 심리상담 연계 지원 등), 취미활동 지원, 추석선물 나눔,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3) '지원'을 넘어 '연결'로

- 인권활동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원자'의 역할을 넘어 인권활동가 사이의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연결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 이를 통해 인권운동 공동의 과제와 전망을 모색하고, 연대를 통한 인권활동 역량 강화를 기대함.
- 2020년부터 매년 인권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활동가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활동 분야를 넘어서는 네트워크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 우수사업으로 평가받기도 함.

4) '버팀목'을 넘어 '생태계 조성자'로

-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에게 모금, 홍보, 회계/투명성 등 단체 운영과 성장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시적인 자문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단 구성원 역량을 높이고, 비금전적 지원영역도 확장 개척하고 있음.
- 인권운동을 향한 지지와 연대의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기적으로 인권단체 소식, 인권의제 소식을 배포하고, 인권활동가의 일과 삶을 살피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함.

●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성공의 경험

본 조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성공한 경험에 대해 기술

1)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발 빠른 대응

- 인권재단 사람은 많은 수의 인권활동가, 인권단체들과 상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이 원하는 지원을 수시로 할 수 있음.
- 특히 코로나19의 등장과 확산은 평소 보이지 않았던 사회적 약자의 취약성을 드러나게 하였고, 인권운동은 부정기적으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바꾸기 위한 활동을 긴급히 전개해야만 했음. 재단은 2020년-2021년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거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며 함께했음. 또한 후원금이 급감하거나 비대면으로 활동이 전환되면서 인권단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지원사업의 기준을 완화하고, 인건비와 월세 지출 등 운영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지원내용	지원연도	지원결과
코로나19와 인권 -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2020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초의 인권 가이드라인 제작 -> 방역 당국과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주문
코로나19 의료공백 대응 활동	2020	보고서 발행, 여론 형성
쿠팡 집단감염 대응	2020	보고서 발행, 여론 형성
인권단체 운영비, 인건비 긴급 지원	2020	10개 단체, 운영비로 지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긴급 대응	2021	외국인 대상 행정명령 중단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자유	2021	보고서 발행, 여론 형성
코로나19와 백신접종	2021	시민사회 의견 수렴, 간담회

- 현재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인권재단 사람이 유일하게 긴급 모금을 진행하였고, 후원금 전액 차별금지법제정 농성 활동으로 쓰임.

2) 인권활동(가)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 2018년 예멘 난민 이주 문제가 사회 이슈로 등장했을 때, 2020년 코로나19로 대구경북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지원기관들이 취약계층 당사자에 초점을 맞춘 모금을 진행하였음. 하지만 인권활동가들이 난민을 위해 한글 교실을 열고, 부당한 대우에 맞서 사업장에 항의 방문을 가고,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이들은 자비로 이동하고, 난민아동의 간식마저 구입해야 했음.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도 활동가들이 자가격리하는 장애인을 지원하면서도 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지원금은 전혀 없었음.
- 인권재단 사람은 난민이 아닌 난민 인권활동가를, 장애인이 아닌 장애 인권활동가를 지원하기 위해 모금을 진행하였고, 후원금은 지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사비, 교통비, 마음치유 상담비 등에 사용함.
-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조사」(2019, 인권재단 사람)를 통해 인권활동가의 욕구와 필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이후에는 심과 재충전 지원, 마음치유지원, 지역활동가 여비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전국인권활동가네트워크(인권활동가 대회 등) 지원 등 활동가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장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더 가깝게 청취하고 있음.

3) '지원자'의 역할을 넘어 '연결자', '생태계 조성자'로

3-1) 지원사업을 통한 단체 성장 프로그램 운영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단체 운영은 더 어려워졌고, 다양한 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났음. 이에 K방역과 정보인권, 탈시설과 장애인 인권, 감염병과 범죄화, 코로나19와 난민인권, 백신과 의약품접근권 등 총 8개 영역에 2천만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함.
- 인권재단 사람이 인터뷰 등을 통해 파트너 단체를 직접 찾았고, 공모방식이 아닌 직접 지정하여 성과를 만들어내고자 하였음.
- 사업비 지원 외 단체 성장을 위한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함. 외부 자원을 연계 하기도 하였지만, 작은 단체에 맞는 워크숍 형태의 교육을 인권재단 사람 구성원들(사무처 활동가들)이 직접 진행하였음. 또, 외부 자원 연계 교육을 1회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 나가고, 단체 규모에 맞는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된 것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교육내용	진행일정(2021년)	진행횟수	참여단체
비영리투명성과 세무회계	4월	2회	20개 단체
홍보/커뮤니케이션 교육	6월	1회	4개 단체
홍보역량강화워크숍	7월	1회	1개 단체
모금교육	10월	1회	9개 단체
우리 단체 모금 여기까지 해봤다 모금 워크숍	10월	1회	4개 단체
단체 모금 집중 워크숍	11-12월	1회씩 (단체당 약 4시간 이상 진행)	3개 단체

3-2) 인권콘텐츠 기획, 제작

- 2018년 유튜브 인권 캠페인 <인권의 모양>을 기획하고, 6가지 주제의 영상을 배포하였음. 재단이 제작한 “모두를 위한 선언” 영상은 조회 수 56만 회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음. 이 캠페인은 서울시의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캠페인>으로 확장되었음.
- 2021년 뉴스레터 ‘읽는 사람’을 런칭하여 텍스트 기반 인권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고 있음.

3-3) 인권센터 공간 운영

- 2013년 설립된 민간독립 인권센터 ‘인권중심사람’에서는 연평균 230건에 달하는 인권행사가 개최되었고, 인권활동 주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
- 눈치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화장실, 문턱 없는 공간, 옥상까지 연결된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여 인권센터 모든 공간이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함. 이에 트랜스젠더단체, 장애인권단체, HIV감염인단체 등에서 기획한 다양한 행사들이 ‘인권중심사람’에서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었음.
- 특히 2014년 12월 인권을 부정하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인권센터를 난입하겠다고 입구를 가로막았을 때, 60여명의 인권활동가들과 시민들이 그들의 진입을 막는 긴급활동을 펼쳤음. 이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신뢰를 얻는 결과로 이어졌고, 보다 안전한 공간을 만든 계기가 되기도 하였음.

■ 제3장 미래비전

※ 제3장은 전년도에 작성하신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수정 가능)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어떤 요소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인권운동 성장 캠프>를 가동하여 인권활동가가 성장하지 못하는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함.

1) 부트캠프 (인큐베이팅) : 신생 인권단체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

-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 조사(2019)>에 따르면 인권활동가들은 고된 노동과 낮은 활동비, 2~3명의 활동가가 모든 역할을 다 소화해야 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로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권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응답함.
- 인권재단 사람은 2020년, 2021년 연인원 130명 이상을 대상으로 활동가 성장을 위한 교육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단체 맞춤형 성장 커리큘럼을 개발, 운영할 계획임.
- 운영의 원칙을 수립하고, 빠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모금, 홍보 역량을 갖춘 단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베이스캠프 : 네트워킹을 통한 성장의 공간 제공

- 인권단체는 "소규모 운영"의 한계를 넘기 위해 네트워크 또는 연대활동을 통해 인권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하지만 인권활동가들이 상시 협업할 수 있는 물리적 자원은 부족한 상황임.
-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대면 활동 모두 가능한 공간에 대한 욕구가 커졌고, 디지털 장비가 마련된 협업공간, 회의실 등이 필요한 상황임. 회의, 상담, 시위, 전시회, 상영회 등 기존의 오프라인 기반 활동들이 이제는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진행되고 있음.
- 베이스캠프는 인권단체 '성장'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인권운동 공동의 과제를 모색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할 예정임. 약 8년간의 인권센터 운영과 공간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활동가에게 최적화된 코워킹 스페이스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함.

3) '더 나은' 캠프 : 새로운 인권 이슈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 사회 변화 흐름에 맞춰,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새로운 인권 이슈를 발굴하고 활성화될 수 있게 지원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이슈파이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더하기 : 인권 캠페인의 기획, 설계, 운영이 가능한 사업비를 지원함.
 - 나누기 : 기금과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진행함.

4) 디지털 캠프 :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는 인권의 언어

-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축하고자 함.
- 인권재단 사람 리브랜딩 : 인권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친숙한 언어로 표현하고, 인권 의제에 대한 시각적 경험을 확장하고자 함.
- 경쟁력 있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과 확산 : 인권 이슈를 온라인 공간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기획하고자 함. 1) 사회적 소수자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 2)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 이슈를 드러내는 콘텐츠 3) 시민들이 인권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이나 궁금증을 해소해줄 수 있는 콘텐츠 등은 희소성을 갖춘 콘텐츠가 될 수 있음.

● 지원사업의 성과 정의

임팩트 그라운드 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떠한 변화를 '성공'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 인권운동 성장 캠프 운영

- 인큐베이팅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재정적 사업적 독립
- 인권운동이 성장하는 협업공간의 활성화 (활동가와 활동가, 활동가와 시민, 시민과 시민)
- 새로운 인권 이슈를 연 2개 이상 발굴하고,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프로그램 안정적 운영

■ 디지털 환경 속 차별과 혐오에 대항하는 인권 전문 채널 운영

- 시민들의 관심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마케팅 프로세스 안착
- 핵심은 현장에 있다 : 현장의 활동가를 크리에이터, 리브랜딩 및 콘텐츠 생산자로 양성
- 인권 콘텐츠와 관련된 현장 단체의 참여 및 기부 창출을 연계

●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에 대한 계획

Scale-Up 이란? 조직의 규모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

Scale-Out 이란? 조직을 분화/모델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평적 방법

■ 스케일-업

- 지속가능한 인권운동 : 인권단체와 활동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 확보
 - 인권운동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간 (사무공간, 협업공간, 교육공간 등) 마련
 - 공간 운영, 다양해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가 역량 강화
- 인권 감수성 증진과 인권존중 문화 확산 :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한
 - 신규 콘텐츠의 양적 증가를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 확보
 - SNS와 각종 콘텐츠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 스케일-아웃

- 인권재단 사람이 꿈꾸는 '인권운동 성장 캠프'가 서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델링하는 성장의 씨앗이 되고자 함.
- 지역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와의 협업으로 '민간 인권센터' 지역 버전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장 지원

● 디지털 기술의 활용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의 과정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기술

■ 아이디어 실현 역량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술

- 업무와 소통, 조직 관리의 효율화를 돕는 디지털 업무 도구 확보
- 인권단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다채널 화상회의 기술

■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기술

- 디지털 마케팅 기술 : 잠재적 지지자들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콘텐츠 타겟을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마케팅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콘텐츠 플랫폼과의 협업을 모색하고자 함.
-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 기술 : 독자들과 콘텐츠 안에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접목하고자 함.
- 접근성을 확보하는 UX, UI 기술 : 독자들 누구나 콘텐츠에 접근하고 동등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